

고하의 혜안(古下의 慧眼)

이정식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정치학 명예교수
경희대학교 객원석좌교수)

고하 송진우(古下 宋鎮禹)

고인(故人)은 나의 말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송진우를 생각할 때 토꾸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를 연상하곤 한다. 이에야스는 일본을 통일하여 500년의 평화를 이룩하고 일본의 근대화의 기반을 만들어 준 영웅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망(大望)이란 역사소설이 잘 나타내 주고 있듯이 그가 정권을 장악하고 일본을 통일할 때까지는 오랫동안 타협과 굴욕을 감수해야 했다. 그의 수하(手下)중에는 자기 군주가 거듭하는 굴욕적인 인내를 못마땅하게 여기기도 하고 그의 의도를 의심하는 자들도 있기는 했으나 이에야스는 끝내 대권을 장악했다. 굴욕을 참고 앞을 내다보며 책략을 세우고 힘을 키우고 있다가 때가 왔을 때 그는 오사카 성을 함락시켰고 일본을 통일했다. 오늘날 그를 비굴하거나 우둔한 인물로 보는 사람은 없다.

물론 고하 송진우는 해방 후의 한국을 통일하지도 못했고 대권을 잡지도 못했다. 그런데도 필자가 송진우를 토꾸가와와 비교하는 이유는 고하는 이에야스에 비등한 특성(character)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3·1운동을 일으킴으로써 조선민족의 자주독립에 대한 염원을 만방에 알리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중앙학교를 경영하므로 후세의 교육에 남다른 역할을 했고, 또 동아일보를 세워 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민족의 자부심을 북돋아 줄 수 있었던 것이었다. 해방 후에 그는 새로운 나라의 총참모장(總參謀長)격으로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누구보다도 더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위인(偉人)이었는데 광란(狂亂)의 정국은 이성적이고 심사숙고형(深思熟考型)이었던 우국지사(憂國之士)를 살해하기까지 했다. 해방 후의 정국은 너무나 획일적이었고 감성적이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필자의 평가를 과분하다거나 아예 동떨어진 것이라고 비난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김성수와 더불어 민족진영의 전형적인 친일파였다고 규탄하기도 했고, 어떤 이는 그가 해방 후에 몽양 여운형이 내민 합작의 손을 튀겨버린 완고파라고도 했고, 어떤 이는 그가 해방 후에 암살 극의 첫 희생이 된 것은 신탁문제에 대해서 무모한 발언을 했던 탓이므로 자업자득(自業自得)이었다고 하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들 비판을 검토함으로써 고하 송진우와

해방 전후의 한국현대사 연구에 제기된 문제들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친일파라는 문제

동아일보나 한국민주당을 떠나서 송진우 개인을 친일파라고 공격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으나 강동진(姜東鎭)교수는 그의 『일본의 조선지배정책사 연구』(日本の朝鮮支配政策史研究)에서 김성수(金性洙)와 송진우(宋鎭禹) 두 인사를 친일파라고 단정했는데 이는 타당치 않은 판정이었다. 특히 같은 책의 후반에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애국적인 신문들이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고, 김성수, 송진우 등이 친일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강동진 교수는 김성수, 송진우 등이 사이토오(齊藤實)총독을 수십차례 만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친일파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대담의 내용은 사이토오의 일기나 강교수의 글에 밝혀지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이들 두 인물의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 신문은 애국적이었는데 사장이나 기업주는 매국적이었다는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해방 후에 김성수를 친일파라고 공격하고 한민당을 친일파의 소굴이라고 규정지었던 공산당의 주장에도 설득력이 없다.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해방 직후에 조선공산당의 수뇌부, 즉 박헌영, 이강국, 최용달 등의 주도 하에 ‘설립’되었던 조선인민공화국은 김성수를 인공(人共)의 문교부장 또는 문교장관으로 ‘임명(任命)’했었다. 최용달은 김성수교장 밑에서 보성전문(普成專門)학교의 교수였으므로 김성수를 잘 알고 있던 인물이었는데 그와 그의 동료들은 김성수 교장을 그들이 만든 정부에서 교육과 문화를 담당할 문교장관직에 ‘임명’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미군이 주둔한 후 미군정과 인공과의 관계, 따라서 미군정과 공산당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김성수가 미군정의 고문으로 채용되자 조선공산당은 친일파를 규탄하는 영문(英文) 팜플렛에서 김성수를 친일파라고 규탄한 것이었다. 그 이유인즉 김성수는 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에 학병(學兵)을 권유하는 글을 발표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보성전문에서 최용달 등과 동료였던 유진오는 그의 회고록에서 문제의 글의 정체를 밝힌바 있다. 이글은 친일파 문제가 전연 화젯거리가 아니었던 시절에 발표된 회고록이었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유진오에 의하면 일제말기에 매일신보의 기자였던 모 청년이 보성전문의 교장으로서 ‘시국의 요구’인 학병문제에 대한 글을 꼭 써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김교장은 극구 거절을 하다가 ‘저영 그렇다면 자네가 무엇이든지 알아서 써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해방 후에 이 기자는 자기가 썼던 글을 증거로 들고서 김성수에 대한 공격을 퍼부었다. 아마도 재빠르게 좌익계열 신문에 자리를 잡고 자기 나름의 ‘공로’를 세우려고 했던 모양이었다. 여하튼 신문에 발표된 글 하나를 가지고 어떤 인물을 친일파 운운하면서 규탄의 대상으로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김성수는 또 총독부의 중추원(中樞院) 참의(參議) 자리를 맡았기 때문에 틀림없

는 친일파였다는 공격도 받아왔다. 이 비판의 근원은 해방 후에, 1946년 가을에, 일본과 남한을 방문했던 미국기자 마크 게인(Mark Gaine)이 그의 *Japan Diary*에서 쓴 것이 기원(起源)인데 전연 근거가 없는 횡설에 지나지 않는다. 친일파에 관한 원전(原典)이 되다시피 한 임종국(林鍾國)의 『친일파군상』에는 중추원참의들의 명단이 실려 있으나 김성수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는다. 고하 송진우의 경우는 물론 그렇다.

그러나 일제하에서 동아일보를 경영했던 송진우나 보성전문학교를 경영했던 김성수가 총독부와 타협을--때때로는 굴욕적인 타협을--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친일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일제하에서 굶어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은 모두 친일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특히 학교나 신문사 같은 기관을 유지해야 했던 인사들인 경우는 더욱 그렇다. 해방후에 귀국한 임시정부 재정부장 조완구(趙琬九)가 송진우 등이 보낸 환국지사후원회(還國志士後援會) 기금 구백만원을 더러운 돈이라고 하여 돌려보냈을 때 송진우가 흥분한 어조로 "정부가 받은 세금속에는 양민의 돈도 들어있고 죄인의 돈도 들어있는 것이요. 이런 큰일에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을 줄 아오"라고 말해 해결한 일이 있었다. 또 국일관에서 베푼 귀국환영연에서 신익희(申翼熙), 지청천(池青天), 조소앙(趙素昂) 등 임정요인들이 친일을 하지 않고 국내에서 어떻게 생명 부지해 왔겠느냐면서 친일인사 숙청론을 폈을 때 듣다못한 송진우가 울분을 터친 일도 있었다. "여보 해공 신익희(海公 申翼熙). . . 여봐요, 중국에서 궁할 때 뭇들 해먹고서 살았는지 여기서는 모르고 있는 줄 알어? 국외에서는 배는 고팠을 테지만 마음의 고통은 적었을 거 아니야. 가만히 있기들이나 해..... 하여간 환국했으면 모든 힘을 합쳐서 건국에 힘쓸 생각들이나 먼저 하도록 해요. 국내 숙청문제 같은 것은 급할 것 없으니....." 라고 정면으로 공박했다고 한다. 조완구, 신익희, 조소앙 등은 청년시절에 고하와 함께 동경에서 유학생생활을 했던 가까운 친구들이었는데도 고하에게 모독을 한 것이었다. <註-古下宋鎮禹先生傳>, 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 독립을 향한 집념(1990), 474-477

물론 인간은 절개를 지켜야 한다. 우리가 사육신(死六臣)을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고하 자신도 절개를 중요시했다. 그는 1935년에 발표했던 『교우록(交友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벼들을 사귀는 데 표준(標準)이 있다. 그것은 오직 신의(信義)다. 남들은 재주(才操)를 통하여 사귀고, 남들은 돈을 통하여, 취미(趣味)를 통하여 사귀다 하지마는 나는 오직 신의를 통하여 사귀다. p.55

동무사이에 서로 믿어지는信義가 없으면 무엇으로 사귀랴. 아침에 보고 저녁에 갈라질 동무라면 재주 있는 벼도 좋겠지. 돈으로 이용하는 벼도 좋겠지. 그러나 인생(人生)은 육십 년이라. 육십 년 동안 서로 형제와 같이

믿고 부탁할 벼를 정하자면 그는 오직 신의뿐이니라. p.56

나는 신문사(新聞社)에 십삼년을 있었다. 학교(學校)에 이십삼년을 있었다. 신문사나 학교나 모두 재자(才子)를 필요로 하는 곳이다. 한다면 하는 一世에 두되 명석(頭腦 明皙)을 올리는 재인(才人)들이 모여야 할 곳이요, 또한 才人만이 모여져야할 곳이다.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아무리 재주(才操)만 있으면 무얼 하라, 마치 아무리 어여쁜 여편네라도 저게 언제 못짐 꾸려 들고 나갈는지 몰라 하게 되면 만사가 귀어허지(歸於虛地)다. 재주(才操)는 귀하다. 재주(才操)있는 사람은 귀하다. 그러나 그 재주(才操)가 신의(信義)를 배경(背景)으로 하지 않는 것이라면 무슨 가치가 있으랴. 나는 신문사원(新聞社員)을 쓰는 데 재주(才操)도 보지만 그보다도 열 배 스무 배 더 신의(信義)를 본다. p.56.

내 곁에 있는 여러 수십수백의 동무는 모다 신의로 다진 동무들이다. 나의 교우(交友)의 신조(信條)는 오직 이 신의(信義)이다. p.56

그러나 절개(節介)문제와 타협, 즉 자기의 원리원칙을 굽히는 일을 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일을 하다가 때에 따라서는 불가항적인 적이나 장애물과 타협하지 않으면 안될 때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당사자의 주체성(主體性)이다. 타협을 하면서도 자기의 신조를 지켜나가는 것과 아예 자기의 주관을 바꾸어 버리는 행동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타협은 배신이라는 공식은 불합리한 것이다.

즉 조선의 지사(志士)들을 총독부가 시키는 대로 맹종(盲從)한 주체성이 없는 존재들이었다고 보아서 안된다. 일제하의 동아일보나 조선일보가 총독부가 시키는 대로 신문을 경영했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이들 신문은 항상 민족적인 견지를 취해왔기 때문에 정간, 휴간, 체포, 징역 등 처분을 예사로 여겨 왔다. 즉 타협을 하면서도 민족적인 견지를 유지해 오다가 나중에는 폐간이 된 것이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타협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중경의 임시정부의 예를 들어도 알 수 있다. 임시정부(臨時政府)는 1941년 11월에 중국정부가 ‘下達’한 「한국광복군 행동준승(準繩)을 받아드리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 준승은 광복군을 중국군의 일개 ‘보조 고용군(僱傭軍)’으로 만든 굴욕적인 협정이었다. 이 준승, 즉 규정은 1944년 8월에 들어서야 폐기되었는데 그때까지 광복군 요인들과 임정요인들은 굴욕을 참아야 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광복군이 ‘준승’의 규범 하에서 오랜 동안 행동을 했다고 해서 주체성을 상실하고 중국군의 고용병이었다고 생각할 것인가? 그렇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국내외의 모든 민족주의자들의 행동의 바탕에는 ‘망국(亡國)에 대한 울분’이라는 ‘원시적’인 감정이 뭉쳐있었지만 힘이 약했기 때문에 굴욕을 참아야 했던 것뿐이었다. 총독부가 자기들이 경영하는 신문사나 학교들을 계속 탄압해온 상태에서, 굴욕을 참고 힘을 키워 가느냐 아니면 옥

쇄(玉碎)를 하느냐 하는 선택이 주어진 것이었다.

「해외에서는 고생을 했겠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한 고하의 말은 음미해야 한다. 일제는 3·1운동 직후의 이른바 ‘문화정치’ 시절에, 즉 일본에 민주주의 사조가 꽃을 피기 시작했던 시절에, 식민지 조선에 신문 간행하는 것을 허용하기는 했었으나 1929년에 시작했던 세계공황이 일본을 휩쓴 후 군국주의와 팽창주의가 득세하게 됨에 총독부의 언론탄압은 계속 악화되어 갔고, 1937년에 중국으로의 팽창을 시작한 후로는 이른바 국가총동원체제를 구축하여 적극적 협조를 하지 않는 자는 모두 적대시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즉 민족을 대표했던 신문들이 1940년에 폐간되어 버린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내에 남아있으면서 굴욕적인 타협을 거듭해야 했던 민족진영의 고충은 형용할 수 없으리 만치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해외에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계속했던 지사들의 공로는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지만 망명 인사들처럼 해외로 도피할 수 없던 민중을 이끌어 왔던 국내의 지도층의 공로 역시 인정해야 했었다. 국외에 망명해 있던 인사들에게는 국내에 남아있으면서 고통을 겪으면서도 끝내 굴복하지 않았던 민족진영의 인사들의 고초를 인정하고 그들을 위로해야 할 책임은 있었지만 그들을 심판할 권리는 없었다. 1940년대에 학병으로 동원되었다가 생명을 걸고 일본군에서 탈주해서 중경으로 도달했던 장준하(張俊河)는 중경에서의 망명객들의 양상을 보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일본군에 지원(志願)하여 임시정부청사를 폭격하러 오겠다.”고 하는 폭탄선언을 했다고 하지만 망명객들의 생활에는 불미스러운 면도 없지 않았다. 특히 장준하를 격분케 했던 것은 망명객들이 여러 가지의 지상정당(紙上政黨)을 만들어 놓고 갖 도착한 청년들을 자기들 당에 끌어들이려는 추태를 보였기 때문이었다.

물론 국내에는 자기들의 이익이나 영예를 위해서 남을 해하거나 민족에 누(累)를 끼치면서까지 친일을 한 분자들이 다수 있었다. 면사무소에서 공출배당을 하거나 징용대상자를 선정했던 자들로부터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거나 양민을 학대했던 경찰관들, 그리고 일제하에서 작위(爵位)를 받고 안일하게 지냈던 족속들까지 허다한 수가 있었는데 이들은 민족의 재판을 받았어야 했다. 해방직후 우리겨레는 민족반역자들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일일이 공정한 심판을 했어야 했는데 미군정이 이 문제에 관여하려 하지 않으므로 해서, 그리고 한국동란의 발발로 시기를 놓쳐 버렸다. 반역자 심판은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넓은 견지에서 긴 안목을 가지고 판단되어야 했었다. 불행히도 이 문제는 과거의 당쟁의 경우와 같이 당면한 정쟁(政爭)과 혼합됨으로서 오늘날까지 냉정한 판단이 되어 있지 않다.

몽양 여운형(呂運亨)과의 합작문제

해방직후에 몽양 여운형과 고하(古下) 사이에 여러 번의 접촉이 있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인다. 몽양의 사돈이며 측근이었던 이만규(李萬珪)에 의하면

몽양은 8월 15일에 이여성(李如星)을 보냈고, 그다음에 또 사람을 보냈으며, 그다음에 몽양이 친히 가서 일을 같이 하기를 권했으나 송씨는 끝내 “경거망동(輕舉妄動)을 삼가라. 중경(重慶)정부를 지지하여야 된다”고 하면서 협동을 거부했다고 하고,¹⁾ 또 한편 송진우와 가깝게 지내던 애산 이인(愛山 李仁)은 송진우가 8월 15일에 몽양을 “두 번이나 만났으나 의견의 상치로 같이 일을 하는 데에는 결렬이 되었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²⁾

불행히도 呂, 宋 양자간의 대화의 내용은 편편적인 것 밖에 알려져 있지 아니 하나 고하가 몽양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우선 송진우는 이미 8월 11일에 총독부측으로부터 치안을 담당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완강하게 거절한 바 있었다. 즉 당시 경기도 지사(知事)였던 이꾸다 세이자부로오(生田清三郎)는 송진우를 만나서 “일본이 후퇴하니 국내치안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한바 있었는데 고하는 “일본이 후퇴했으면 했지 우리 조선사람들이 일본으로부터 어떤 지시나 부탁을 받을 성질이 아니겠고 그것은 오직 우리 자신이 처리할 것이라는 이념이 앞서고 또 총독부 측의 고등정탐적 소위(所爲)나 아닌가 고도 의심했기에 자기는 병이 있어서 감당할 수 없다고 두 번이나 거절한 것이었다.”³⁾ 따라서 고하는 몽양이 하는 일은 건국준비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보다도 총독부의 부탁을 받고 일본사람들을 위해서 치안을 맡아 준다는 선입감이 앞섰던 것으로 보인다. 송진우와 가깝게 지내던 김준연(金俊淵)은 “나는 송진우씨에게서 다음과 같은 말을 수백번 들었다”라고 했는데 수공이 가는 말이다.

일본이 망하기는 꼭 망한다. 그런데 그들이 형세가 궁하게 되면 우리 조선 사람에게 자치(自治)를 준다고 할 것이고, 형세가 아주 궁하게 되어서 진퇴유곡(進退維谷)의 경우에 이르게 되면 그들은 조선 사람에게 독립을 준다고 할 것이다. 우리가 자치를 준다고 할 때에 나서지 아니할 것은 물론이려니와 독립을 준다고 하는 때에도 결코 나서서는 안 된다. 그때가 가장 우리에게 위험할 때다. 망해 가는 놈의 손에서 정권을 받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불란서의 폐탕정권을 보라. 중국의 왕조명(王兆銘)정권을 보라. 또 필리핀의 라우엘 정권을 보라. 그들이 필경 허수아비 정권밖에 되지 못할 것이고 민족반역자의 이름을 듣게 된다.⁴⁾

일단 이꾸다 지사의 부탁을 거절한 송진우는 “내가 맡아서 할 것이었다면 직접 맡아서 했을 것이지 왜 한 다리 걸쳐서, 그것도 평소 경원(敬遠)해 오던 몽양이 주도하는 단체에서 들러리 노릇을 할 것이냐” 하는 감정이 작동했을 수도 있다.

1) 李萬珪, <呂運亨鬪爭史>, 204면.

2) 김봉기, 서용길 共編, 愛山餘滴, (1961), 140면. 여기에 수록된 <일제말엽의 나의 수난> 이란 글은 <코메트> 라는 잡지의 1955년 10월호에 실렸던 글이다. 李仁은 <해방전후 片片錄>, 360면에서도 송진우와 여운형이 두번 만났다고 기록했다.

3) 愛山餘滴, 138면. 李仁, <해방전후 片片錄>, 360면.

4) 金俊淵, <獨立路線>, 서울, 1947년, 5면.

또 한편 고하는 여운형과의 교섭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꿈에도 그림던 민족의 성업(聖業)은 거족적이라야 한다. . . 그러나 몽양(夢陽), 민세(民世)도 그렇거니와 그 주위가 문제라고 몽양에게 언급했으나 불응한다”라고 했다고 하는데,⁵⁾ 이 구절은 “땀은 古下의 민족주의와 夢陽의 사이비 공산주의가 서로 타협이 되기 어려울 것이고 또 은연중 주도권을 서로 장악하려는 배짱으로 맞지 않는 것이었다”라고 한⁶⁾ 이인(李仁)의 말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몽양과 고하간에는 성격차이로부터 사상면까지 많은 거리가 있었는데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몽양주변을 맴돌면서 그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공산주의자들이었다.

필자도 오랫동안 고하는 몽양과 합작했어야 했다고 믿고 있었고, 또 그들 거두(巨頭)들이 합작했더라면 해방정국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으나 해방된 날부터 몽양과 보조를 같이 했고 건국준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활약했던 민세 안재홍과 몽양간의 관계, 특히 민세가 건준을 떠나게 된 상황을 보고 역시 고하의 판단이 옳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민세는 그 후에 발표한 글에서 건준을 조직한 첫날 저녁부터 몽양 곁을 떠나려고 했었는데 몽양이 극력 부락을 했기 때문에 한동안 더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 안재홍이 합작을 단념하게 된 이유는 간단했다. 몽양은 공산당 측의 옛 동지들의 말을 경청하는 한편 민세의 주장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건준의 성격을 규정하는 지도층의 좌우세력의 분포 문제였다. 조선일보 사장으로 오랫동안 시무했고 강직한 인사로 알려져 있던 민세는 당시까지만 해도 유력했었던 우익 측이 영도권을 잡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반면 몽양은 반대적인 입장이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너무나 성급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필자의 「여운형과 건국준비위원회」, 『歷史學報』 제15, 16합집, 참조)

공산당의 주도층이 건국준비위원회를 인민공화국(인공)으로 돌변시킨 과정은 공산당의 급진성과 몽양의 연약성을 너무나 잘 나타내 주었다. 미군이 인천에 도달한 것이 9월 6일이었는데 공산당의 수뇌부는 자기들이 지배하는 정부를 만들어 놓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인공을 만들어 버렸는데 그들이 소집했다는 이른바 인민대표대회라는 것은 돌발적인 오합지졸의 모임으로서 그 모임에 대한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다. 그런데도 몽양은 그 자리에 나가서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는 미사여구(美辭麗句)로 그 장소를 정당화해 주었다. 이미 조선은 해방되었고 소련과 미국의 군대가 남북조선을 장악하고 있는 마당에서 국가와 정부를 세우는 과업은 누구라도 수공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서 신중히 수행되었어야 하는데 공산당은 선수(先手)를 치고 싶은 의욕이 이성을 가리고 있는 것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필자의 “조선공산당과 인민공화국”과 “여운형,” 역사학 시민강좌를 보시라.)

송진우와 여운형 간에는 또 하나의 타협할 수 없는 차이점이 있었다. 이만규는

5) 愛山餘滴, 140면.

6) 李仁, <해방전후 片片錄>, 361면.

송진우가 “경거망동을 삼가라. 중경(重慶)정부를 지지하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협동을 거부했다고⁷⁾하는데, 중경정부, 또는 임정문제는 그 후에도 좌우 진영을 갈라놓는 큰 문제의 하나로 등장했다. 9월초에 조직된 대한민국임시정부 및 연합군 환영 준비회가⁸⁾ 보여 주듯이 우익 측에서는 중국 중경에 망명중인 임시정부를 중요시하고 임정이 즉시 귀국하여 건국의 중심이 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반면 여운형은 “먼저 국내의 혁명동지를 규합하여 단결하고 준비하고 나중에 입국할 해외동지를 맞아들여 혼연일체(渾然一體)인 과도정권을 세울 계획이었다”는 것이다.⁹⁾ 그리고 그는 임시정부를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던 여러 독립운동단체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었으며 꼭 임시정부만이 해방 후의 건국사업의 중심이 될 필요는 없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¹⁰⁾

이처럼 여운형과 송진우간, 그리고 좌익과 우익간에는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가 있었으므로 8·15 당일의 협동을 위한 노력은 결실하지 못했는데 몽양과 고하 양자간의 교섭실패의 원인은 거론된 문제점들에 대한 의견 차이보다는 더욱 더 깊은 상호간의 불신과 경쟁심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운형, 안재홍 등과도 오랫동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오기는 했으나 송진우와 더욱 가까운 사이였던 李仁은 “판은 古下(송진우)의 민족주의와 夢陽(여운형)의 사이비 공산주의가 서로 타협이 되기 어려울 것이고 또 은연중 주도권(主導權)을 서로 장악하려는 배짱으로 맞지 않는 것이었다”고 했는데¹¹⁾ 정곡을 찌른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운형과 송진우가 해방된 날 선뜻 손을 잡고 합작하기에는 1930년대부터 계속해 온 갈등이 너무나 큰 장애물로 작용한 것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오랫동안 은연히 누적되어 온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던 데에다가 새로운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으므로 타협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李仁은 송진우가 총독부측의 제안을 거절한 것을 비판하면서 “古下의 정보의 암매(暗昧)했음과 또 동지들과 한마디의 상의조차 없이 독단으로 생전(生田)의 말을 거절했던 것이 실수라고 느낀 대로 얘기했다”¹²⁾라고 했지만 李仁 등이 송진우를 만난 직후에 여운형과의 재교섭에 나선 것을 보아서 呂, 宋 양자간의 교섭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운형과 우익진영과의 갈등은 후에도 계속하였으므로 다시 논하기로 하겠다.

고하의 태도에 대한 판단

필자도 고하가 이꾸다의 부탁 또는 중용을 거절한 것은 이인(李仁)이 지적한 요

7) 李萬珪, <呂運亨鬪爭史>, 204면.

8) 국사편찬위원회 편, <자료 대한민국사> 1권 (1968), 45, 49-51면.

9) 李萬珪, <呂運亨鬪爭史>, 185면.

10) 이 글에서 고하와 몽양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필자가 『歷史學報』 호에 발표했던 「呂運亨과 건국준비위원회」에 발표한 것을 재인용한 것이므로 양해를 구한다. 몽양의 입장은 그 글에 더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11) 李仁, <해방진후 片片錄>, 361면.

12) 위의 글, 360면. 李仁은 그전에 쓴 글에서 이 장면을 묘사할 때 <그 의연한 태도에는 감동했으나 古下 역시 정세판단이 서툴고 또 그와 같은 중대사를 어찌해서 동지와 상의 한마디 아니하고 독단 거절했느냐고 論難한 것이었다.> 愛山餘滴, 139면.

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한다. 고하는 것처럼 조심성 있는 인물이었다. 어쨌든 고하가 총독부측의 부탁을 거부한데 대해서는 필자도 이인과 의견을 같이 한다. 즉 그는 조심성이 너무나 강했다. 어쩌면 일제가 패망하기에는 너무나 일렀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고하 송진우가 몽양과의 협조를 거부한데 대해서는 여러가지의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우선 그는 몽양이 주도(主導)했던 건준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 이 문제는 건국준비위원회라고 하는 단체에 대한 태도와 중심인물인 몽양과의 관계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고하는 건준이 총독부의 위촉을 받은 단체라는 점, 그리고 임시정부의 귀환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들었는데 이러한 관점은 타당성이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투항직후에 어떠한 형태이건 간에 조선민중을 대표하는 기관이 필요했다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다. 치안유지문제와 식량확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타협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중경의 임시정부의 예를 들어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도 중요했거니와 총독부가 중요문서들을 소각하는 것을 방지했어야 하는 일도 있었다. 아직 언제 해외의 망명객들이 돌아올 것인지는 미지수(未知數)였다. 결국 건준은 위의 세 가지 역할 중에서 첫째 것 외에는 담당하지 못했지만 그것만을 위해서라도 조선 사람들의 조직이 필요했다.

몽양과의 관계라는 차원에서, 즉 해방직후라는 중대한 시기에 있어서 좌와 우가 합하여야 했다는 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건국준비위원회는 거족적이어야 했다.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민의를 대표하는 조선 사람의 기관이 되었어야 했다. 고하의 주변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이인, 김병로 등은 이러한 관점에서 고하를 설득했고, 이에 따라 좌우간의 교섭이 진행되었던 것이었는데 결국 교섭은 성사되지 않았다.

신탁통치문제

고하가 생애의 마지막으로 다루었던 문제가 신탁통치에 관한 것이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1945년 12월 27일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3상회의의 결정에 관한 보도는 온 나라를 들끓게 했다. 이미 그해 10월에 미국국무성의 극동국장 빈센트가 조선에 신탁통치제도를 적용할 것이라는 연설을 했다고 해서 전국이 긴장하고 있었는데, 모스크바에서 열린 3상회의에서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들이 신탁통치에 대한 결정을 했다고 하니 흥분할 수밖에 없었다. 신탁통치제도의 적용이란 조선의 독립을 5년간 연기시킨다는 것이었는데, 많은 사람은 조선을 신탁제도 밑에 둔다는 것은 조선민족에 대한 모독이라고도 믿었다. 왜냐하면 제1차대전이 끝난 후 국제연맹이 신탁을 실시했던 지역은 모두 미개(未開)한 남양의 토인들이나 아프리카의 원시적 원주민지역이었기 때문이다. 모스크바 결정은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문명국가라는 조선 사람의 긍지를 부셔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임시정

부 요인들은 이미 1943년 조선에 신탁통치가 실시될 것이라는 설이 보도되었을 때에도 반대성명을 발표했던 일이므로 이 문제에 대한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단호했다.

신탁통치에 관한 보도가 있었던 그 날 저녁 잣 귀국했던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머물고 있던 경교장은 수라장이 되고 있었다. 임정요인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모스크바 결정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경교장에서는 거족적으로 반탁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장소에 참여했던 청년 강원용은 그곳의 광경을 다음과 같이 회술 했다.

항상 내 머리 속에 남아있는 것은, 바로 그 신탁통치반대를 위해서 모인 경교장의 1945년 12월 29일일 겁니다. 28일 저녁인가 29일 저녁에 모였을 적에 일입니다. 뚱뚱한 사람이 앞에 앉아 있는데 우리는 그때 한국민주당이라면 별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송진우씨, 장덕수도 그때 나왔고 다 나왔는데, 이렇게 하고 앉아서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는데 김구 선생은 이제 내가 나서서 내일부터는 짚신을 신고 나서겠다고 그러고 말이지. 김규식 박사는 내 하지란 놈을 오늘 가 만나서 저 미국놈들 내쫓아야 한다고 소리소리 지르고 모두 흥분을 해가지고 그러는데, 송진우씨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그 사람을 참 정치가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승만 박사 같은 형도 아니고, 그가 참 멋있는 정치가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첫째로는 그 양반의 판단이 과연 지도자다운 판단이었다. 우리 같이 한 20대의 청년들이야 멋도 모르고 떠들지만, 그것은 참 지도자로서 으레 한번 해야 될 판단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뭐 김구나 김규식이나 그 양반들도 화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거야 뭐 청년들도 다 할 수 있는데,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합리성을 가지고 좀 냉정한 이성을 가져야 하는 건데, 그 양반(고하) 하나가 그런 얘기라도 할 수 있었다 하는 그 점에서 내가 이제 높이 평가를 하고.

둘째로는 그 분위기에서는 그 말은 못하는 겁니다. 그건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기서 그 뭐 전부 자기 손자들 같고 아들 같은 자들, 그사람 눈으로 볼 적에야 다 후배라도 몇 배 후배인데 거기서 형편없는 공격을 받았어요. 모두들 일어나서 보라고 말이야. 저러니까 저렇게 한 게 아니냐고, 막 들입다 야단치고 모두 그런데, 그 분위기 속에서 그 말을 했다는 것. 그래서 그 이틀 만에 12월 30일에 암살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양반이 죽었다고 해도 별로 애석한 생각이 없었어요. 그 한국민주당 뭐하고 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늘 생각에 떠오르는 게 그 사람이라.

그런데 내가 보건대 그 사람이 이박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나쁜 의미에서의 tactic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그 장소에서는 그 발언을 안 했으리라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역시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그 정치적인 양심과 동시에 양식(良識)을 함께 가진 사람이라면 그 시절에 흘러 지나간 사람 가운데서는 그 사람이었다.

그런데 사실에 있어 송진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Background도 모르고 다른 것도 모르고 그랬지만, 내게 지금 세월이 흘러갈수록 가장 강한 인상을 남겨준 사람은 그 사람이고.... 모두들 소리소리 지르고 이제 그러고 난장판이 벌어지는데, 모두 그저 흥분을 해 가지고 서로 욕설을 하고 이렇게 야단을 치는데 이 양반이 가만히 앉았다가 일어서서, 이제 정중하게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지금도 나는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국가에 대한 일을 이렇게 감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그 참 민족의 대계(大計)가 아니냐. 그런데 우선 여기서 모스크바 삼상회의(三相會議)의 결의문 원문을 읽은 분이 있느냐. 그래 적어도 민족의 영수들이 모여서, 철시를 하는 것도 좋고 무슨 미 군정청을 배척하고 협조를 안한다고, 사보타주하기로 전부 그랬거든. 그런데 다 좋으나 그래 적어도 청년들이라면 몰라도, 민족의 영도자(領導者)들이 그 원문내용을 지금도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둘째로 만일에 지금 듣는대로 최고로 정말 5개년간의, 제일 길어야 5개년간의, 신탁통치를 한다 하면 뭐 그게 그리 나쁘냐? 민주주의라 하는 것도 훈련기간이 있는 거다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루나 이틀에 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쟁취를 한 독립이 아니고, 연합국에 의해서 주어진 해방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지금 첫째로는 그 결정의 원문을 보지 않고서는 결정을 내기가 어렵고, 또 그 원문을 봐서 지금 듣는 것하고 같은 얘기라면 구태여 우리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반대할 게 뭐 있겠느냐.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전형적인 송진우를 발견한다. 신탁을 받아드리느냐 안느냐는 문제는 다시 고찰하겠지만 우선 우리는 사태를 신중하게,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고찰하자는 주장에 주목해야 한다. 그가 몽양에게 했다는 말, 즉 “경거망동을 삼가라”는 충고는 고하의 신조라고 할 수 있다. 1930년대에 어떤 기자는 송진우는 동양적이고 여운형은 서양적이라고 하면서 “송씨가 평양에 오면 요정(料亭)에 앉아서 대동강을

바라보지만 뉘씨는 벌거벗고 대동강을 헤엄쳐 놀겠데.”(郭福山, 동아특과원, 백광)라고 했는데, 고하는 신중(慎重)형, 또는 심사숙고(深思熟考)형인 반면 몽양은 돌진형 또는 행동파였다.

그날 고하가 그런 발언을 하게 된 이면에는 그와 하지사령관간의 대화가 있기도 했다. 하지는 그 후에 서울에 시찰차 방문했던 육군차관 트레이퍼를 만났을 때의 보고에서 자기가 신탁문제에 대해서 송진우를 설득시켰었는데 다음날에 머리에 총알을 맞고 사망했다고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하는 결사반대입장에 반기를 들었던 것이었다. 과연 그는 어떤 말로 고하를 설득했을 것인가. 그의 주장은 한민족으로서 용납할 수 있던 것이었던가? 여기에서 참고로 할 것은 하지중장 자신은 한국 문제에 있어서 신탁통치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고 국무성에 요구했었다. 그러나 미국 정부 내에서는 1943년부터 조선을 신탁통치 하에 두어야 한다는 결정이 내린 바 있었고 그 정책은 1947년까지 변하지 않았다.

신탁통치에 대한 미국 측의 동기도 그렇고 신탁통치의 형태도 1943년에 의논되었던 것과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결정된 것과는 차이가 있었으므로 일괄적으로 미국의 동기나 정당화 하는 논리를 말할 수는 없다. 1945년에 들어서면서부터 미국과 소련은 냉전에 돌입하게 되고 따라서 미국의 동기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하지사령관이 1943년 5월 15일자의 신탁통치에 관한 미국국무성의 내부문서를 읽고 그 내용을 송진우에게 전달했다고 했을 경우 당시의 전 국민의 10중 8, 9는 고하와 의견을 같이 했을 것이다.

한국의 경제발전과 전망 (Korea: Economic Developments and Prospects)이라는 제목의 이 문헌은 1943년 3월 13일부터 한국에 대한 신탁문제를 토의하기 시작했던 위원회를 위해서 작성된 문헌인데 이 문서의 제9장은 경제의 대안과 결과 (Economic Alternatives and Consequences) 라고 되어 있다. 경제적 대안 (또는 선택)이라고는 했지만 (1) 조선이 일본 영토로 남아있을 경우, (2) 조선이 독립했을 경우, 그리고 (3) 조선이 국제신탁 하에서 자주적 정부를 가진 후에 자유로운 독립국이 되었을 경우를 논하였으므로 정치형태가 경제에 미치는 결과를 논의한 것이었다. (U.S. Archives, Box 63, RG59) 첫째의 선택은 논할 필요도 없겠거니와 둘째의 경우, 즉 즉각 독립되었을 경우의 경제사정은 매우 열악할 것으로 보았다. 일본인들이 제거된 후에는 산업을 운영할 숙달된 인원이 부족할 것이며, 대다수의 무직자가 생겨서 새 정부를 맞출 것이라고 했다. 또 일본과의 교역이 단절된 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때 까지는 무역수지가 매우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독립된 정부는 경제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도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았다. 그 반면 국제신탁이 실시될 경우 한국은 새로운 시장을 찾을 것이며, 경제적 원조를 받을 것이며, 많은 인원이 훈련될 것이므로 새로이 설립되는 정부는 안정될 수 있다고 했다. 즉 이 보고서의 작성자는 신탁통치를 식민지 경제가 가져온 여러가지 폐단을 시정해 주고 조선을 발전도상에 올려놓는 체제라고 보았다.

이 당시 하지사령관이 모스크바회의의 결정문을 받고 있었는지 또는 신탁문제에

대한 미국정부 내의 토의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고하가 설득되었다면 후견(後見) 또는 원조기간이라는 말, 즉 위의 보고서에 적혀있는 내용과 비등한 말을 했을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정치는 혼돈할대로 혼돈되어 있었고 경제는 경제대로 매우 힘든 형편에 있었으므로 여러가지 형태로 신생국을 도와주는 것이 신탁이라고 할진대 구태여 반대를 할 이유가 없었다. 물론 위에서 묘사한 신탁제도는 너무나 이상적이어서 실천될 가능성은 너무나 희박했다. 그리고 이 안은 소련이 대일전쟁(對日戰爭)에 참가하기 오래전의 작성된 것이고 냉전이라는 개념조차 알려지지 않았을 때의 것이었다.

이정식 :

미국 UCLA졸업, UC Berkeley 박사.

Scalapino 교수와의 공저 <Communism in Korea> (1972)로 1974년 미국정치학회 최우수 저작상, 2012년 경암학술상 수상.

현재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정치학 명예교수 및 경희대학교 석좌교수.